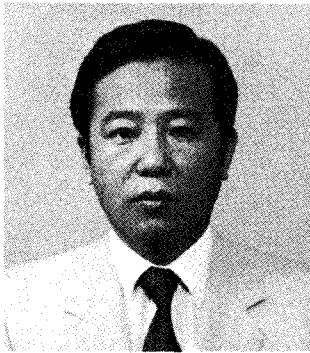


勞使關係의 未來像



東遠光學(株) 專務理事
朴英祚

요즈음 各種 메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不安하게 하는 要素가 있다. 바로 그것은 80年代 中半부터 好況을 누리오던 우리 經濟가 元高現象에 따른 輸出不振과 勞使紛糾 등으로 沈滯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診斷과 今年 下半期の 經濟展望에 對하여 悲觀的인 見解가 支配的이라는 事實이다.

政府에서도 多角的으로 對策을 講究하고는 있겠으나 勞使問題가 이렇게 急激하게 台頭되어 深刻하게 우리 經濟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로 作用하리라고는 아무도 豫測하지 못했기 때문에 治癒를 爲해서는 相當한 犧牲을 치루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勞使紛爭의 自律的 解決

87年 下半期부터 세차게 불어닥친 勞動運動의 물결은 그동안 대체로 평온을 유지해왔던 우리 產業界에 커다란 波紋을 일으키면서 擴散되어 왔다. 勞組가 없이 잘 運營되어 오던 各事業場에 勞組가 設立되기 시작하면서 勞使間의 대립과 실력행사로 인한 勞使紛糾가 커다란 社會問題로 台頭되기 시작했다. 高度成長에 따른 후유증으로써 언젠가 한번은 치르고 난 후 勞使和合의 段階로 成就되어 간다는 것을 先進國들의 例로 보아 豫想은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時期尙早의 感이 없지 않다. 勤勞者側에서는 그들이 高度成長의 主役이었는데도 不拘하고 經濟的인 面에서 그에 相應하는 成果의 配分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非經濟的인 面에서도 應分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視覺에서

實力行使을 해서라도 應分の 處遇를 爭取하겠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使用者側에서는 經營문제와 對外競爭力 弱化, 그리고 社會의 存立問題를 내세워 強경자세를 取함으로써 勞使間의 自律的인 解決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雙方의 強경대응의 裏面에는 그간에 쌓인 不滿과 깊은 不信의 골이 패어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今年들어 크고 작은 各種 勞使紛糾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特히 서울地下鐵공사와 現代重工業의 紛糾 등은 처음부터 無理한 要求를 提示하여 勞와 使가 強경하게 一步도 讓步하지 않음으로써 勞使間의 對話와 妥協이라는 自律的인 解決方法을 찾지 못하고 公權力 介入이라는 最惡의 代價를 치르면서 正常化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後遺症과 雙方의 損失만을 남기고 말았으며 얼마전 正常化된 大宇造船의 경우도 政府와 經營層이 自救策을 講究中인 赤字투성이의 會社에 無理한 要求를 하는 勞組側과 廢業으로 맞선 會社側의 對決이 全國民의 관심의 焦點이 되었으나 끝내는 별다른 所得도 없이 公權力 介入 一步 직전에서 解決의 方向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會社의 立場에서 보면 最近의 造船景氣 好況을 제대로 누리보지도 못하고 赤字를 累積시키는 結果를 招來함과 同時에 不況의 늪에서 허덕이던 日本의 造船業界에 活氣를 불어 넣어주는 結果만을 招來하게 되었고 勤勞者側面에서 볼 때 長期間의 농성과 無作業으로 크게 얻은 바 없이 서로 상처만 입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日本에게 배우고 日本을 앞지르자는 UCLA의 윌리엄 오우치 教授의 “Z 理論” 중 日本의

勞使紛糾에 關한 한 가지 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오우치 教授가 調査次 日本을 旅行하던 중 某 美國系 日本會社를 訪問했을 때 美國人 工場長이 數日前 이 工場에서 있었던 罷業에 對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從業員들로부터 6週前에 通告가 있었고 罷業 當日에는 프랭카드와 벽보 피켓을 들고 全員이 工場마당에 모여 籠城을 했기 때문에 不得已 當日은 休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午後 五時 終業時間이 되니 프랭카드와 벽보 피켓이 깨끗이 없어지고 作業者들이 마시고 버린 커피컵, 담배꽂초, 휴지 등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前日 休業으로 生産하지 못한 分을 초과근무를 하여 完全히 메꾸었다고 한다. 美國人 工場長은 美國式 思考方式으로는 도저히 理解를 할 수 없어 平素 낮익은 作業者를 불러서 그 事由를 물어보았더니 그 作業者는 「우리들은 經營者에 對하여 不滿이 있다. 우리들의 진지한 意思表示를 하기 爲해서는 이 方法밖에 없었다. 그러나 會社는 우리들의 會社이다. 우리들이 會社에 對하여 不誠實하다는 생각을 經營者들이 갖지 않도록 하기 爲해서였다」고 答했다고 한다. 이처럼 日本의 勤勞者들은 終身雇傭에 따른 會社에 對한 所屬感과 愛社心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年代 後半부터 70年代 初에 걸쳐 日本에서도 學生運動과 勞使問題가 深刻한 時期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勞使紛糾처럼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다. 제네랄 스트라이크도 있었으나 파괴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順法鬭爭으로 違法이나 不法은 一切 없었다.

앞으로 우리의 勞動運動도 하루 빨리 成熟하

여 過去 日本에서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意思表示를 함에 있어 파괴행위나 暴力 不法 違法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며 交渉方法은 平和의 이고 公開의이며 또한 自律의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勞使問題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經濟가 보다 發展하고 하루빨리 先進國隊列에 進入하기 爲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成長이 持續되어야 한다.

過去 10余年間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奇蹟的인 두자리 숫자의 成長을 거듭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으나 今年부터는 한자리 숫자로 떨어진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6月 14日字 香港의 世界的인 研究機關인 「정치 경제 리스크 컨설턴트社」의 韓國經濟에 關한 最近 研究 報告書에 依하면 89年度의 GNP成長率은 88年度의 12.2%에서 크게 떨어지는 5%~8.5%로 豫想되며, 89年度 貿易經營收支는 88年度의 135億弗의 50%程度인 60~70億弗로 推算되며, 89年度 1/4 分期 經常收支 黑字幅은 88年度 29億弗의 50%에도 未達되는 13億弗이었으며, 輸出實績은 1/4 分期중 價格面에서는 9.3% 增加하였으나 物量面에 있어서는 2.3% 減少함으로써 79年 以來 처음으로 마이너스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앞으로도 繼續 勞使紛糾가 問題가 된다면 輸出物量은 4~6% 減少될 것이 豫想되며 輸出의 急激한 鈍化原因은 첫째가 勞使紛糾가 直接 原因으로 代表的인 産業이 自動車, 造船, 電子, 鐵鋼 等이며 두번째가 賃金上昇에 원貨切上 效果가 複合된 것이다

(平均賃金 引上率 87年 17.2%, 88年 13.5%, 89年 18.4%), 세번째가 바이어들이 우리나라를 外面하고 臺灣, 香港, 싱가폴 等 제3국으로 輸入先 轉換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勞使紛糾와 계속된 高率의 賃金引上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勞使 모두가 覺醒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使用者는 먼저 經營實績을 비롯한 諸般事項을 充分히 公開하고 貫容과 대화를 通하여 勤勞者로 하여금 信賴感을 갖게 하고 勤勞者는 賃金이나 勤勞條件에 있어 無理한 要求보다는 經營實績을 바탕으로 하여 生産性 向上을 감안한 適正線에서, 對話를 通하여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風土를 造成함으로써 円滿한 勞使關係를 유지하고 또한 生産性 向上에 寄與함으로써 國家發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3. 結論

우리나라 勞使關係의 歷史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勞使關係를 보는 視角도 成長論的인 側面만이 아니라 社會發展이라는 側面에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英國의 經濟가 비참한 수준에까지 轉落한 이면에는 勞組, 政府, 그리고 經營者間의 相互不信의 歷史가 있었다는 점과 오늘날 세계 제2의 日本 經濟를 뒷받치고 있는 原動力은 社員 相互間의 信賴感은 勿論 從身雇傭이라는 人事政策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본보기로 하여 勞使間의 不信風潮나 意識의 갭을 좁히고 보다 많은 共感帶를 形成함으로써 비로소 産業民主主義와 勞使平和가 定着될 수 있을 것이며 勞와 使가 共存共營하는 바람직한 勞使의 未來像으로 成熟하게 될 것이다.